월요광장

뉴라이트와 대통령

박 석 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자 지지하던 세력에서야 환영할 일이었겠지만 그의 행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때 강고한 민주투사로서 학생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고 노동운동가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뉴라이트의 세례를 받으면서 반민족적 망언을 일삼았고 이른바 극우 보수주의자들인 '태극기부대' 즉 전광훈 세력에 동조하면서 극우 논리를 거침없이 토해내던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말았다.

그런 행적을 멈추지 않던 그는 마침내 윤석열 정부에 입각하면서는 윤석열 추종자로 변신하고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의 우두머리가 된 윤석열의 탄핵에도 반대하는 '반탄'의 논리를 거침없이 주장했다. 종북 반국가세력이 암약하고 있으니 그들을 척결하고 야당이 의회독재라는 횡포를 부리니 그것을 막고, 부정선거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니 부정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는데, 김문수는 아직도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서 윤석열의 귀환을 바라는 정치인이 되었다. 웃음으로 넘기자 해도 웃음도 나오지 않는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유세를 다니고 있으니, 도대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래 최대한 양보해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경고용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나 36년의 긴긴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수난을 당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 이것만은 참으로 용인할 방법이 없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의사로 열사로 목숨을 바치면서 일본과 투쟁했던 애국선열들의 혼을 어찌하란 말인가. 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은혜의 나라가 일본이라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가 목숨까지 바친 선열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경제적 수탈, 강제노역 등 우리 국민이 당했던 그 고통의 아픔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며칠 전 카톡으로 보내준 지인의 글을 기억하고 싶다. "뉴라이트를 후견 배경으로 삼고 전광훈과 손을 잡으면서 고생한 윤석열이 다시 집권해야 한다는 김문수의 반민족, 내란, 극우 망언의 기사들을 모아보았다. 참으로 기가 찬다." 라는 말에 이어 '시민언론 민들레'의 많은 기사, '한겨레'의 여러 기사, '오마이뉴스'의 기사, '한국일보'의 기사 등 김 후보의 어록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히는 말의 한 대목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기록에는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하여 국감을 파행시켰던 일은 특기할 내용의 하나였다. 일제의 식민지로 국권이 강탈당한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으니 일본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총칼로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 등을 수거해다가 척결할 대상자를 나열하였고 헌법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여 부정선거 자료를 찾겠다고 무장군인들이 쳐들어간 내란, 그런 내란의 우두머리가 탄핵당해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다시 귀환하여 재집권을 원했던 정치인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암담하고 아찔하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다. 비록 내란 세력이 일시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려던 내란을 일으켰으나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법으로 파면시켰다.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피 한방을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 박근혜와 윤석열을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파면시킬 수 있는 민주의식을 지닌 국민이다. 그런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올바른 선거를 치르려하는데 뉴라이트 세력이 집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도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최소한 뉴라이트가 집권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호소해 마지않는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필의 향기

세비야의 말

김 향 남
수필가

세비야는 문명이 겹겹이 쌓인 도시다. 로마의 흔적, 이슬람의 문양, 가톨릭의 종탑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고, 광장과 성당, 궁전과 골목마다 정복과 저항, 기억과 망각이 뒤엉켜 있다. 이 복잡한 문명의 한가운데서, 말은 천천히 걷는다. 인간이 만든 문명 위를, 말은 말없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 걸음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문명을 만들었지만,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대의 마차에 올라 세비야의 시간을 흐르기로 한다. 마부는 손끝의 작은 움직임으로 말을 이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언어보다 오래된 묵약이 있다. 그 사이를 매개하는 건 채찍이 아니라 리듬이다.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느린 박자에 나는 점점 동화되어 간다.

마차가 천천히 광장을 한 바퀴 돈다. 반원형으로 펼쳐진 스페인광장은 붉은 벽돌과 황금빛 타일로 햇살을 머금고 있다. 멀찍이서 바라보는 건축물은 마치 거대한 무대 장치처럼 도시의 역사를 품고 서 있다. 말은 그 앞을 유영하듯 지나고, 광장은 어느새 말과 인간, 기억과 침묵이 함께 걷는 시간의 풍경이 된다.

관광객의 웃음소리, 이국의 풍경, 짙게 물든 하늘. 그러나 내 귀에 스며드는 것은 말발굽이 내는 규칙적인 울림이다. 땅을 두드리고, 시간을 두드리고,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말발굽 소리는 즐겁지도 않고 단순히 우아하지도 않다. 그것은 삶이 지나가는 소리, 고통을 품고 계속 나아가는 소리다.

히랄다탑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비야 대성당의 무거운 구조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그 아래를 지나는 마차는 고요하고, 말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눈은 인간의 신앙과 권력, 영광과 죽음을 모두 지나온 눈이다. 성당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뻗은 상징이지만, 말의 눈은 지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의 시선을 품고 있다.

알카사르 앞을 지나고, 멀리 황금의 탑이 보인다. 이슬람과 기독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서사가 겹겹이 쌓인 공간은 말의 걸음을 통해 천천히 해체된다. 인간은 기념비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의 장소를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기억은 돌에 새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을 통과해 흐르는 고통의 리듬 속에 있다. 말은 그 리듬을 밟고 걷는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도시의 숨결이 한층 가까이 느껴진다. 하얀 벽, 철제 창살, 만개한 제라늄이 이어지는 거리. 이 골목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을 통과하는 것 같다. 말은 이 미로를 알고 있다. 말은 단순히 길을 아는 게 아니라, 도시의 깊은 결을 몸으로 기억하는 존재다.

나는 다시 말의 눈을 바라본다. 그 안에는 언어 이전의 세계가 있다. 슬픔과 인내와 침묵.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비추는 타자의 세계다. 그 눈을 보며 스스로 묻는다.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문명의 환상 속을 걷고 있을 뿐인가.

어느 겨울, 토리노의 한 거리에서 니체는 말을 껴안고 울었다.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때리는 인간과 맞는 말 사이에서 니체는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인을 꿈꾸었으나 광인이 되어버린 그의 울음이 말발굽 소리에 또각또각 실려온다. 아, 나는 무엇 앞에서 울 수 있을까? 무엇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가?

인간은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만, 동물은 말없이 아픔을 견딘다. 순종하고 침묵한다. 그 침묵은 말보다 강한 언어다. 인간이 만든 윤리나 철학보다 오래된, 더 본능적인 진실이다. 인간은 말을 부리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눈물을 삼킨다. 문득 그녀 '한강'의 목소리가 귓가에 머문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마차는 다시 스페인광장으로 돌아온다. 햇살은 반원을 그리며 퍼지고, 말은 조용히 숨을 고른다. 마부가 고삐를 풀자, 마차는 멈춘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말의 눈이 움직이고 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조용히 속삭인다. 너의 눈은 문명보다 오래되었다. 너는 인간을 기다린다. 우리가 인간이 되기를. 그리고 생각한다. 어쩌면 인간은, 말의 눈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아직 인간이 되어가는 중인가.

기 고

한국 조선업의 기회와 과제

선 치 웅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
에너지설비자동화과 교수

미국이 조선산업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랜 기간 쇠퇴 일로를 걸었던 미국 조선업은 최근 자국 안보와 산업 자립, 친환경 해양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군사·경제적 패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산업 강국인 한국에게는 분명한 기회이자 동시에 대응이 필요한 도전이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움직임은 여러 측면에서 기인한다. 우선, 군사적 대응 차원이다. 중국의 해양력 강화, 러시아의 해군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은 자국 해양 방위력을 스스로 보완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둘째, 상업용 선박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와 공급망 자립 의지가 결합되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전략산업의 국내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탈탄소 전략도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해운사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미국도 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선박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 조선업체들도 미국 시장에서 발 빠르게 전략적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은 2024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여 자회사 형태로 미국 내 해군 선박 정비 및 개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또한 미국의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I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 조선소 기술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조선산업 부활은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인 동시에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첫째,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Buy America 조항에 따라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생산 또는 조립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합작 형태의 조선소 운영,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현지 법인 설립 등의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기술은 단순 생산 능력을 넘어서 탄소배출 저감, 스마트 설계, 고효율 추진 시스템 등 고도화된 기술을 포함한다. 이에 부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국제 인증 체계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존재하므로 기술이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계약 및 보호 장치가 필수다. 또한 디지털 설계 자산에 대한 국제특허와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노동·환경 규제 대응 및 인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노동권 보호와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현지 생산 시 관련 법률과 표준을 충실히 준수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숙련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 우수 인재의 파견과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조선업은 단순한 수주 산업을 넘어 전략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과 기자재 품질, 생산 관리 기술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다. 그러나 지금은 이 경쟁력을 '국경 밖'에서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조선산업을 새롭게 육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단순 외주 공급업체가 아니라 '공동 산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와 통상 협력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통상 협상 테이블에서 조선산업 협력을 공식 의제로 삼고 세제 혜택, 수출 금융, R&D 보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한국 조선업계에 위기이자 기회다. 이제는 단순히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드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글로벌 무대에서 정책, 환경, 기술, 노동, 외교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조선산업은 미래 30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이재명 '개헌 구상' 국민 뜻 모아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지만 호남인들의 숙원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거듭 제안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헌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의 구체적인 제안이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도 즉각 환영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개헌이 6·3 조기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의 개헌 제안 골자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987년 시작된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한번 뼈아프게 확인한 만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책임총리제의 일환으로 대통령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호남인들의 관심사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포함돼 있어 의미를 더한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합의했다며 민주주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하자고 구체적으로 개헌 시기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개헌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 건강 위협하는 금호타이어 화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부실한 관리가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타이어 생산공장 특성상 한번 불이 발생하면 진화도 힘들고 다량의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

17일 오전에 발생한 화재는 국가소방동원령 발령과 함께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31시간 40분 만에 주불을 진압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2년 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의 경우 나흘만에 완전 진화가 이뤄졌던 사례를 감안하면 마지막 불씨를 잡을 때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이번 화재도 초기 대응이 부실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묵살해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방송도 없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완진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진화 이후에는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인재 소지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회사측이 입은 막대한 손실과 타이어 수급 악화로 기아차 광주공장이나 GGM(광주글로벌모터스)과 같은 자동차 생산업체와 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건강권이다. 타이어가 타면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은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가 매 시간 측정하는 대기질 상태에서는 현재까지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꼼꼼하게 체크해 공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無 等 鼓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신 일화는 1980년대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했다. "부당하게 신을 모독하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국외 탈출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악법이라 해도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꺼이 독약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소크라테스 일화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데 활용됐다. 훗날 일부 법학자는 군사정권이 '악법도 법'이라는 법실증주의를 신봉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법의식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정권을 유지했다고 평가한다.

국내 학계에서 소크라테스 '신화'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이는 강정인 서강대 교수다. 1983년 한국정치학회보에 발표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라는 논문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인용은 근거가 전혀 없는 전설 또는 낭설이라며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와 의인화된 아테네 법률의 대화에 나오는 몇 구절을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일반화한 해석론이라고 통박했다. 크리톤은 '악법도 법의 출처'로 거론되는 플라톤의 기록이다.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만이 부정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뿐, 아테네의 법률에 관한 한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아테네 정치질서 일반에 관해서도 아무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의 주장이 공감을 얻으면서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는 교육당국에 초·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강정인 교수가 최근 타계했다. 그가 논문 말미에 쓴 문제의식은 아직 유효하다. "막연히 '민주시민'의 '준법의무'를 강조하는 남한의 교과서는 그러한 민주시민이 충성을 바칠 가치가 있는 민주사회와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법규준수의무에서 해방돼 독재정권에 저항·봉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윤영기 정치·경제에디터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